

기후환경보도준칙의 필요성과 제정 과정

김기범

[(가)기후환경언론인포럼 준비위원장]

1. 서론

(가)기후환경언론인포럼은 한국 언론인들의 기후환경 분야 보도 역량을 강화하고 공식적인 언론인 협회를 설립하기 위해 조직된 준비 모임입니다. 과거 환경부 기자들로 구성되었던 한국환경기자클럽을 계승 및 확대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럼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은 기후변화 위협을 기후위기로 명명하고, 언론 보도의 질적 수준을 높여 실질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후위기 보도 준칙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후 보도는 양적으로는 증가했으나, 지나친 공포 조장으로 기후 우울을 유발하거나 시민들에게 자기 효능감을 주지 못하는 등의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준칙은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기후위기 문제를 융합적 관점, 객관적 과학적 근거, 기후 정의의 시각으로 다루는 올바른 보도의 표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본론

1) '기후위기 보도 준칙' 마련을 위한 단계별 논의 과정

(가)기후환경언론인포럼은 보도 준칙 작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다양한 논의와 스터디를 진행했으며,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모임을 통해 준칙의 초안을 구체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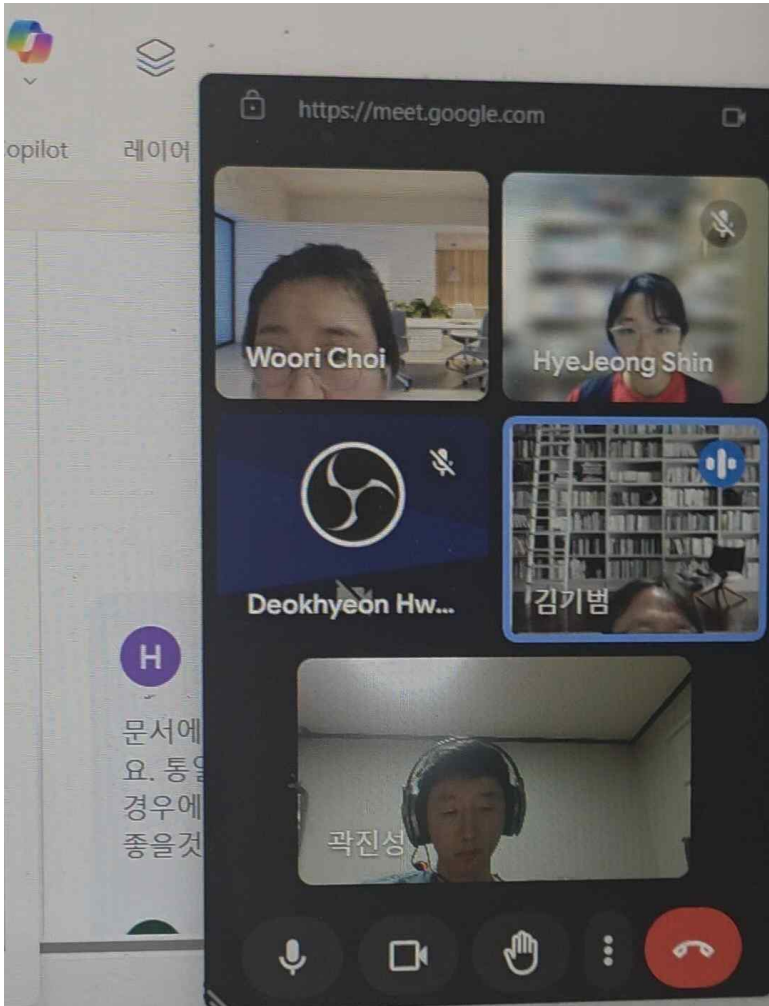


3월 21일 오프라인 모임

기후환경보도준칙의 필요성 및 현황 발제

기후변화 탄소중립 보도 관련 토론

기자 개인의 정확한 기사 작성에 대한 갈등과 데스크킹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준칙이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공유



3월 30일 온라인 모임

준칙 마련을 위해 실무적으로 필요한 내용 토론

국제 기후회의 보도 방안, 기후환경 전문 기자의 제언

국제회의 보도 시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후 이슈가 언론의 주요 아젠다로 자리 잡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 방안 모색

4월 18일 온라인 모임

기후환경보도준칙 초안 내용 공유 및 토론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보도 관련 준칙 필요성 논의

환경보건과 화학물질처럼 위해성이 높고 과학적 불확실성이 큰 분야를 객관적·과학적으로 다루기 위한 구체적인 윤리 및 보도 기준 정립에 착수



10월 30일 오프라인 모임

4월 이후 활동 중단 관련 상황 공유 및 활동 재개의 필요성 토론
 생물다양성 및 동물 보도 준칙 필요성 발제
 환경부 댐 건설 계획과 준칙의 역할 토론

11월 10일(예정) 오프라인 모임

준칙 작성 및 공개 관련 1차 내부 세미나
 국회 토론회 준비
 기상캐스터를 통한 기후 보도의 질 향상 방안 토론
 준칙을 사회에 공식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준비 작업 및 다양한 전문가(기상캐스터)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 보도의 전달력과 질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방안 논의

3. 결론

결론: 기후위기 보도 준칙의 핵심 목표

(가)기후환경언론인포럼이 제정을 추진 중인 기후위기 보도 준칙은 한국 언론이 전 지구적 기후 위협에 책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한 저널리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준칙의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적·과학적 보도: 정확한 사실과 공인된 과학적 데이터(IPCC, WMO 등)에 근거해 위험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보도합니다. 잘못된 정보(그린워싱 포함)는 신속히 바로잡아 사회적 혼란을 예방합니다.

구조적 파악 및 대안 제시: 기후위기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융합적 주제로 다루며, 단선적인 현상 대신 사회구조적 원인을 드러냅니다. 또한, 독자에게 자기 효능감을 줄 수 있는 구조적 대안과 솔루션을 제시하는 보도를 지향합니다.

기후 정의 관점: 기후위기가 심화시키는 사회적 불평등을 인지하고, 기후 취약계층의 인권을 조명하며 기후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준칙은 기후위기 보도에 관한 '나침반'이 되어 언론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사회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인 기후 적응과 대응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부록

- 기후환경보도준칙 초안(2025년 10월 현재)

기후위기 보도준칙(전지구적 기후위협에 관한 언론 보도 준칙)

보도 준칙 제정 이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오르고 생태 환경이 파괴되어가는 기후변화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기후변화 현상은 세계 곳곳에서 재현되고 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는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한 인위적인 것이며 이로 인한 위협은 지구 모든 생명과 문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때문에 기후환경언론인들은 기후변화가 야기한 위기 상황을 바르게 전달하고자 ‘기후위기’로 명명하고자 한다.

우리 언론인은 기후위기 관련 보도가 국내는 물론 국제 사회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분명한 심지(心志)로 원칙을 마련해 문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 .

기후위기 관련한 보도는 단순히 과학, 환경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기후위기 문제는 사회 모든 구성원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가치관을 잘 조정하는 데 그 존재 이유가 있다. 또한 단선적인 보도만이 아닌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기후위기’라는 관점으로 관련 보도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문에 기후위기 보도는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기후환경기자협회(가칭)은 다음과 같이 <기후위기 보도 준칙>을 제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세부적인 보도 방법 등은 추후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다.

보도 준칙

◆기후위기 보도의 무게감

기후위기 콘텐츠가 시민, 인류, 생태계, 지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

미디어는 기후위기가 과거와 현재, 미래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에 및 시민의 삶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함을 인식하고, 콘텐츠의 제작 및 편집 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관점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저널리즘 원칙에 기반한 객관적·과학적 보도

정확한 사실과 과학에 근거해 위험을 축소하거나 과장하지 않는다. 심화하는 기후위기 현실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진단, 감시하고 고발해 사회 변화를 이끌어낸다.

◆사안의 구조적 파악

기후위기는 정치, 국제, 경제, 산업, 사회 등 모든 사회 영역에 걸친 주제이다. 미디어가 다루는 영역은 모두 기후위기와 관련이 있으며, 각 사안이 모두 긴밀하게 얽혀있다. 따라서 기후 콘텐츠 제작 시 출입처 중심의 보도 관행을 뛰어넘어 융합적 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지원, 노력해야 한다. 또한 기후위기 현실에 대해 단선적 현상을 전하기 보다 사회구조적 원인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한다.

◆대안 제시

기후위기에 대해 보도할 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수용자들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대안은 개인 차원의 실천을 포함하되 구조적인 문제를 조명하는 것을 지향한다.

◆정확한 정보전달

기후위기와 관련한 허위 정보를 판별하고 잘못된 보도는 신속히 바로잡는다. 특히 친환경을 가장한 그린워싱 주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킬 수 있는 만큼 명확히 검증해 시민의 이익에 기여한다.

◆기후정의 관점

기후위기는 사회 곳곳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이에 기후보도 과정에서 사회적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기후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후취약계층의 인권을 위해 노력한다.

◆뉴스룸의 독립성과 책임

기후위기 관련 보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 각 분야의 전환 부담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는 종합적인 보도를 하도록 노력한다.

◆지역·독립언론의 기후위기 보도 강화

지역·군소·독립언론은 지역사회 기반의 기후위기 현실을 밀도 있게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 다양한 규모의 언론이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교육적 기반 마련을 지향한다.

보도 가이드라인

기후변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 정확한 사실과 과학적 정보에 근거해 위험을 과장하지 말고 엄격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기후위기 취재와 기사작성에 있어 부정확한 주장을 지양하고 철저히 저널리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잘못된 기후변화 보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바로 잡아, 과대응과 오적응을 방지하고 오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사전 차단한다.

독자들의 눈높이를 고려해 어려운 용어, 개념을 최대한 쉽고 정확하게 풀어서 쓰기 위해 노력한다. 일방적인 주장과 추상적인 이론보다 현장과 사례를 찾아 이를 드러내기 위해 노력한다.

기후위기 보도는 출입처의 구속을 받지 않고, 융합적 보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통해 출입처주의, 부서간 장벽을 깨는 언론사 내부 변화를 이룰 수 있게 적극 기여한다.

IPCC평가보고서(AR), WMO 등 기후변화 사안과 관련된 공인,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사용한다. 출처가 불명확한 기후위기 자료나 통계는 가능한 인용하지 않도록 한다.

교묘한 그린워싱에 속아 이를 친환경인 것처럼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 명확하고 검증가능한 정보를 통해 그린워싱 여부를 최대한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권력, 광고 등 권위와 자본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이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언론의 본령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전환 부담이 큰 기업과 정부의 고민을 이해하고,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객관적인 방식과 한계와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기후변화 문제는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위기가 도래한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기후취약계층 발굴에 적극 나서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의 피해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데스크와 에디터등 편집국 데스크는 기후위기 문제를 언론이 지향해야하는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편집회의 등을 기후위기적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보는데 주목해야 한다.

편집국은 모든 현장기자들이 자기영역과 닿아있는 기후위기를 적극적으로 취재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기후위기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전담팀을 두는 것도 방법이나 전담팀에게만 모든 기사의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언론사의 ESG 경영 실천을 촉구하며, 취재, 기사작성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고려해 가급적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향한다.

협회(가칭)는 기자들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보도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최신 데이터를 소개하는 등 교육프로그램과 전문가와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 활용을 지원, 노력한다.